

## 연세대학교 천안관측소와 전천탐사프로젝트

### 변용익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 자외선우주망원경연구단

연세대학교 천문대는 광해로 인해 관측연구가 불가능해진 일산관측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관측시설을 충청북도 천안시 외곽의 대학부지에 건설하고 있다. 갖추어지는 시설은 0.5-m 광시야 자동망원경 2기로서 현재 구입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 설치될 예정이다. 이 망원경들과 관측장비는 우주망원경의 운영개념에 따라 원격명령스트림에 의해 자동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망원경에 부착되는 2k CCD에서 나오는 방대한 자료도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게 된다. 이를 활용한 전천탐사용 파이프라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연세대학교의 전천탐사는 1차적으로 미국과 합작으로 진행되는 자외선우주망원경(GALEX)이 관측하게 될 Deep Survey영역을 위한 광학탐사를 목표로 하며, 2차적으로 관측가능한 전천을 대상으로 천체변이현상을 감시하게 된다. 주목적이 되는 변이현상은 변광성이며, 약 17등급에 이르는 천만개 이상의 별들에 대한 상시 광도감시를 통해 세계최초로 CCD를 이용한 전천변광성탐사를 수행함으로써 연세대학교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발전시켜온 변광성 분야의 연구를 크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전천탐사의 부수적인 소득으로는 혜성체와 소행성체, 그리고 지구근접소행성체의 발견이 있다.